

7/20(수) 전도서 1-6장 해 아래에서

“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(1:1)”

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합니다(왕상3:9, 10:1).

그럼에도 자기 이름을 감추고 다윗의 이름만 드러냅니다.

온갖 지혜와 지식, 쾌락을 누리고 연구해 본 결과(1:12-13, 2:25),

하나님만 바랐던 다윗이 참 지혜자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.

그는 청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던 그 시절,

<예루살렘 왕>으로만 기억되길 원합니다.

인간은 <해 아래에서> 간힌 생을 살아갑니다(1:2-3).

해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해만을 따라가는 삶,

시간에 매이고 현상에 매여 하늘을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.

모두를 경쟁자로 여기며, 모든 것을 <나> 중심으로 봅니다(2장, 4장).

먹고, 쥐고, 소유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(1:3, 6장).

“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

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(1:2-3)”

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는 근심과 번뇌를 가져올 뿐입니다.

<세상>이 붙은 것은 다 유한하며 인간 또한 모두 죽게 됩니다.

<때>를 모르고 하는 수고와 열심만큼 헛된 것이 없습니다.

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와 질서를 깨닫고 따름이 복입니다(3:11-15).

해 아래,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본질과 실체는

하늘 위,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(1:24, 2:24-26, 3:14-15).

나는 <해 아래> 갇혔습니까? <하늘 위>를 바라봅니까?

❶ 시간/물질/경쟁/현안에 급급한 삶, 간힌 삶을 살고 있습니까?

❷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본질과 실체를 깨닫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전도서 1-6장